

**월요광장**



강용주 광주트라우마센터장

### 불처벌의 관행과 싸우는 날

〈‘유엔 고문 생존자 지원의 날’을 보내며〉

“당굴이 나무를 정복하듯이/ 꽃이 열매를 맺듯이/ 마침내 이루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라” 나희덕 시인이 깊은 목소리로 시 ‘살아라, 그리고 기억하라’를 낭송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에 존경과 감사의 울림이 퍼져 넘치는 자리. 바로 지난 6월 26일 ‘유엔 고문 생존자 지원의 날’ 행사가 열린 빛고를아트 스페이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뿐만 아니라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여순사건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유가족 분들, 민청학련 및 긴급조치 9호 관련자 분들, 민족·민주 열사 유가족 분들.. 수많은 국가폭력 피해자·고문생존자들과 그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압투병 중인 박심혜, 박승희

열사의 아버지도 멀리 서울에서 달려오셨습니다. 아버지 곁에는 분명 박승희 열사도 함께 지리했을 테지요.

6월 26일은 ‘유엔 고문방지협약’이 발효된 날입니다. 1998년 유엔 사무총장 코피안은 이날을 ‘고문생존자 지원의 날’로 지정하면서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고통의 세월을 인내해온 이들에게 우리의 존경을 표하는 날”이라고 했지요. ‘고문이 사라질 때까지, 고문을 자행하는 자들이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날까지’ 모든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개인이 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호소에 응답하여 운창현 광주시장, 그리고 오랜 세월 피해자들과 함께 해온 인권운동가들도 고문 없는 세상을 위해 결연결을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광주 트라우마 센터는 지난해부터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4년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여순사건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유가족 분들, 민청학련 및 긴급조치 9호 관련자 분들, 민족·민주 열사 유가족 분들.. 수많은 국가폭력 피해자·고문생존자들과 그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압투병 중인 박심혜, 박승희

는 것입니다.

요 몇 년 새 고문 조작이 밝혀져서 재심에서 무죄를 받는 과거사 사건은 많지만, 그 고문 조작의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 ‘불처벌의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불처벌의 관행’이 계속 된다면 지난 70여 년 동안 벌여졌던 학살, 고문, 간첩조작, 강제동원, 군대 내 폭력, 의문사, 철거 및 노동현장에서 벌여졌던 직·간접적인 국가 폭력이 되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고문을 비롯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의 실현입니다. 그 때문에 유엔은 ‘불처벌에 대한 투쟁 원칙’을 통하여 정의의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와 피해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 권리, 정의를 실현할 권리, 그리고 배상받을 권리가 그것입니다.

불처벌의 문제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주어진 진실·정의·배상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폭력과 고문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오히려 다치게 만듭니다. 남미에서 불처벌 문

제를 연구해 온 라우흐푸스(Rauchfuss) 박사는 가해자에 대한 불처벌 때문에 인권침해 생존자들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생존자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불처벌에 대한 투쟁은 인권에 관한 적법하고 도덕적인 투쟁일 뿐만 아니라 생존자의 지속적인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2014년 6월 26일은 국가폭력과 고문 생존자와 그 가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고문을 종식하고 고문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노력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또한 불처벌의 관행과 싸우는 날이기도 합니다.

나희덕 시인이 낭독하신 시가 깃가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숨은 눈을 통하여/ 마침내 붉은 열매가/ 우리를 넘어 날아오를 때까지/ 살아라, 그리고 기억하라.”

고문과 국가폭력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 저항이 있고, 광주가 있고, 인권과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고통의 세월을 견디고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社說**

### 한·중FTA 타결 임박... 농축산업 피해 어찌나

한·중 정상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연내 타결하기로 합의해 양국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지만 ‘경제 영토 확장’이라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전담을 비롯한 국내 농축산물의 대부분 가격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3일 청와대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연내에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오는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즈음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국 협상단은 그동안 1만2000여 개 품목 가운데 90%, 수입액 기준 85%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고 2단계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한국 측은 자동차·

석유화학·기계 등 제조업 분야의 개방을 강조한 반면 중국 측은 농축수산물 시장의 조기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한·중FTA가 체결될 경우 농업 분야에서 15년간 한미 FTA의 2~5배인 29조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라는 것이 농업 관련 단체들의 주장이다. 특히 잇단 FTA로 어려움을 처한 전남의 농축산물들은 화생 불능의 지경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따라서 우선 협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관세 철폐 제외 대상인 초민감 품목에 지역 농산물을 많이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전남도는 식량작물, 양념채소류, 과수, 특용작물, 축산물, 임산물 등 피해가 예상되는 180여 개를 민감 품목에 포함시켜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왔다.

아울러 FTA로 인한 이익을 농업·농촌에 재투자하는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도 서둘러서 생명산업 농업을 되살려야 할 것이다.

### 학생건강 위협 고카페인 음료 판매 규제

청소년들이 카페인을 많이 들어있는 음료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명무실한 규제 방안 때문에 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청소년의 카페인 1일 권고량은 125mg이다. 하지만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카페인 음료를 2병만 마셔도 1일 기준치를 훨씬 웃돌게 된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잠을 쫓기 위해 무분별하게 유해 음료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광주YWCA의 ‘고카페인 음료 판매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문제가 아주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광주·전남 학교 매점 42곳 중 액상 커피가 판매되고 있는 곳은 무려 13곳이었다. 학교 인근의 편의점과 마트에서도 고카페인(㎎/당 0.15mg 이상 함유) 에너지 음료와 액상커피를 언제든지 사서 마실 수 있는 실정이다.

고카페인 음료는 각성 작용이 있긴 하지만 수면 사이클을 방해함으로써 집중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성적

하락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지속적인 음료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명무실한 규제 방안 때문에 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피해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너무나 허술하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변경 200m 이내의 학교 매점과 우유판매업소에선 고카페인 등의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YMCA 모니터링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일부 학교 매점은 아무런 생각 없이 문제의 음료를 팔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업소를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다. 또한 학교와 보건당국은 학생들에 대한 건강교육을 강화해 고카페인 음료의 위험성을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단속규정을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

**법조칼럼**



김해경 광주지검 검사

### 꽃과 별이 있는 곳, 검찰청

어느 덧 계절이 바뀌어, 하루 종일 장맛비가 내리고 있다.

올해 2월 광주지검에 발령받고 첫 출근하던 날, 새벽 기차에서 내렸을 때 차가운 공기에 하얀 입김까지 나왔던 것을 생각하면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실감한다. 삭막하던 앞마당에 연두색 새싹이 돋더니 금세 봄꽃이 피었다가 지고, 이제 온갖 이쁨 모를 풀들과 벌레들까지 가세하여 여름이 되었음을 알려준다.

바쁜 일상 속에서 계절의 바뀜을 그때

그때 알아채지 못하고 봄의 싱그러움이나 여름의 에너지를 만끽하며 살지도 못하지만, 출퇴근길에 문득 발견한 작은 꽃이나 수수한 빛을 내고 있는 별을 보면서 소소한 기쁨을 느끼곤 한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뭐’ 이렇게 위안을 삼으면서.

광주지검에서 이제 5개월 정도밖에 근무하지 않았지만, 예상하건대 나에게 광주지검은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첫 출근날 따뜻한 커피와 예쁘게 꾸민 연벌을 건네며 친절하게 맞아준 우리 검사실 식구들과, 최근 다리를 다쳐 절뚝거리던 때 평소 안면이 없었는데도 먼저 다가와 손을 잡아주고 부축을 해준 광주지검 직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검찰청에 이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광주지리를 잘 모르고 운전이 서툴러 택시를 종종 이용하는데, 기사님들이 검찰청 정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아

휴, 검찰청은 괜히 무서워요. 살면서 이런 데는 가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긴 검찰에서 누구를 구속하고, 어디를 압수수색하고, 누구를 재판에 회부했다 등등 흥흥한 느낌의 검찰기사가 빠지는 날이 없으니, 언뜻 검찰이 차갑고 무서운 무지해 보일수도 있겠다. 필자가 어릴 때부터 탐정소설이나 미스터리 수사물을 보며 검사의 꿈을 키워왔던 터라 검찰청이 삶과 꿈의 타전이지만, 일반인들에게 검찰은 우스갯말로 ‘돈을 트러요’로 갖다 쥐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일 것이다.

검찰은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곳이므로 본질적, 태생적으로 차갑고 어두운 곳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맞다. 공공서비스 ‘수사를 위한 공간’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사기업처럼 건물을 화려하고 멋지게 꾸밀 수도 없다. 게다가 보안유지상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으니, 건물에 딱 들이서는 순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죄를 지은 것처럼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다.

하지만 검찰청 앞마당에 꽃이 피고 작은 별이 반짝이듯이, 꽃처럼 마음이 예쁘고 별처럼 হল로 어두운 곳에서 남모르게 빛을 내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또한 검찰청이다. 자랑스런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외계인이 아니라 평범한 한 가정의 아빠·엄마이자 아들딸이나 여씨먼 당연한 딸일 수도 있다. 사람 사는 거, 사살 다 똑같다.

얼마 전 광주지검 현관에 ‘검손, 배려, 경청’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겠습니다’라는 현판이 걸렸다. 겉으로 내세우기 위한 공허한 말이 아니다. 조금 더 노력하자는 광주지검 직원들의 바람이자 다짐이다. 이런 작은 노력들로 지금 당장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지는 않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검찰이 따뜻하고 배려하는 국민의 검찰로 다가기리라 믿어 본다.

**기고**



김승철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부위원장·성균관대 교수

### 광주U대회, 지역에 자산 남기는 모범 대회로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유니버시아드가 벌써 1년 전의 일이 되었다. 이는 곧 대회의 발돋움 을 넘겨받은 광주가 다음 경기를 펼쳐야 하는 시간이 그만큼 다가왔다는 의미다. 19개 종목 선수 300여명을 이끌고 선수단장 자격으로 참가했던 지난해 카잔대회는 이전까지와는 한층 다른 위상을 느낄 수 있었던 대회로 기억한다. 러시아 최고의 권력자 푸틴이 개막식과 폐막식에 모두 참석해 선수단을 환영했던 것뿐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시설과 화려한 콘테츠로 ‘강한 러시아’의 모습을 보여준 것도 인상적이었다.

유니버시아드는 명실상부한 전세계 대학 스포츠인들의 최고 축제다. 과거 유니버시아드를 통해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팬미언들이 배출되었고, 특히 육상, 수영 같은 기초종목은 올림픽 기록에 못지 않는 기록들이 쏟아진다. 서구 유럽에서는 프로리그의 튼튼한 기초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대학스포츠다.

최근 중국 선전(2011년), 러시아 카잔(2013년) 대회를 거치면서 내용 못지 않게 규모 면에서도 올림픽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국내에서는 여전히 대학스포츠의 가치를 낮게 보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이처럼 열악한 현실에서 대회 준비는 올림픽처럼 해야 하는 것이 광주의 과제다. 대회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대회의 가치를 낮추어 보는 국내 인식은 가장 큰 난관일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부터 기업 후원까지 영향을 미친다.

솔직히 지금의 상황은 10여 년 전에 치러졌던 2003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때보다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당시에는 대구 지하철 참사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국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었지만, 현재는 한정된 재원을 놓고 아시아권게임, 올림픽, 군인체육대회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

들과 모든 부분에서 경쟁해야 한다. 더욱이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사정도 넉넉지 않아 올림픽마저도 스폰서 기업 유치에 쉽지 않다고 하니 유니버시아드의 어려움이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더더욱 실속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신축시설을 줄이고 기존 시설을 고쳐 쓰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비용을 줄인 것은 절한 일이다. 또한, 국제기구와 협상을 통해 애초 정부가 승인해주 예산보다 1천여억원 이상을 절감. 정부의 재정우수모델로 선정된 것은 객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국제기구와 마케팅 협상을 통해 모든 권리를 가져와 대회 수익 창출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마케팅 권리는 국제기구가 갖고 일부 분야의 후원사인 개최국에서 유치할 수 있다. 마케팅 수단 국제기구가 조직위원회에 20~70% 정도를 배분해주는 경우도 있다. 2003대구유니버시아드에서도 수입을 나눠가졌던 국제대회스포츠연맹으로부터 모든 권리와 수입을 100% 가져왔다는 것은, 다른 국제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자치단체들은 배워야 할 것이다.

대회를 준비함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많은 난관이 있었겠지만 현재까지는 큰 과오 없이 해왔다고 본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이제 남은 기간은 딱 1년이다. 국제기구와는 끈질긴 협상으로 실리를 찾아가면서 글로벌시대에 걸 맞는 지역 홍보 전략을 세우고, 대회가 끝나고 시설관리 및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작업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 주민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하여 건강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 마인드를 갖고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필자는 대학스포츠인의 한 사람으로서 광주유니버시아드가 경기뿐 아니라 문화·예술, 학술대회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대회로 기록되길 바란다. 170개국에서 오는 2만여 명의 손님들이 광주를 찾고 그 좋은 기억을 안고 돌아가는 것이 대회의 개최 효과를 극대화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려면 지역의 모든 주체가 적극적으로 대회를 밀어주고 지지해주어야 한다. 유니버시아드를 통해 다른 도시처럼 광주도 새로운 성정의 발판을 놓기를 희망한다.

無 等 鼓		
<p>“계속해서 비는 내렸다. 어찌나 한나절씩 빗발은 오는 것으로 하늘은 잠시 선심을 쓰는 척했고, 그러면서도 찌무룩한 상태는 여전히 낮게 뜬 그 칠흑 회색 구름으로 억누르는 손의 무게를 더 한층 단도리하는 것이었고, 그러다가도 갑자기 하마터면 잊을 뻔했다는 듯이 악의에 찬 빗줄기를 주룩주룩 흘리곤 했다...”</p> <p>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윤홍길의 중편소설 ‘장마’의 한 대목이다. 한가운데서 삼촌과 외삼촌이 빨갱이와 국군으로 갈리면서 전쟁의 비극이 첨예화</p>	<p>는다. 소설에서 ‘장마’는 이데올로기로 대립하며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냥던 고통스러운 전쟁을 상징한다.</p> <p>장마는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의 오호츠크해 고기압 사이의 힘겨루기에서 비롯되는 기상 현상이다. 서로 성질이 다른 두 공기 덩어리의 힘이 엇비슷해지는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동서로 길게 장마전선이 형성되면서 여러 날 많은 비를 뿌린다.</p> <p>‘우리말 갈래사전’(박용수 엮음)을 들춰보면 여러 날을 억수로 내리는 장마를 ‘억수장마’라 했다. 또 초가을에 비가 쏟아지다가 변칙 개고 또 오다가 다시 가는 장마는 ‘건달 장마’라 한다.</p> <p>불발터위가 언제 있었느냐는 듯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8호 태풍 ‘너구리’(NEOGRUI)마저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월호’ 실종자 11명을 찾기 위한 작업이 중단됐다.</p> <p>매년 장마철마다 산사태와 수해 등이 반복된다. 여느 해보다 ‘안전이 강’되면서 철육의 발을 온통 물결레처럼 질펀히 적시고 있었다”로 시작해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는 문장으로 끝맺</p>	<p>를 들춰보면 여러 날을 억수로 내리는 장마를 ‘억수장마’라 했다. 또 초가을에 비가 쏟아지다가 변칙 개고 또 오다가 다시 가는 장마는 ‘건달 장마’라 한다.</p> <p>불발터위가 언제 있었느냐는 듯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8호 태풍 ‘너구리’(NEOGRUI)마저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월호’ 실종자 11명을 찾기 위한 작업이 중단됐다.</p> <p>매년 장마철마다 산사태와 수해 등이 반복된다. 여느 해보다 ‘안전이 강’되면서 철육의 발을 온통 물결레처럼 질펀히 적시고 있었다”로 시작해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는 문장으로 끝맺</p>
<p><b>장맛비</b></p>		
<p>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 ‘골든타임’ 우리를 지키는 생명의 시간

최근 리프트 붕괴사고부터 해양 선박사고, 노인요양시설 화재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대외적으로 상당히 실추되고 있다. 매년 사고를 당할 때 마다, 어른들의 잘못된 안전불감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고 말만하고 흐지부지 넘어가는 약손환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사고란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촌에서

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사고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사고대처 능력 또한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차 도착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심정지 환자 등에 대한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이 지연되어 소중한 생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골든타임 개념을 재난현장에도 적용해 긴급차

량의 도착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화재 시에는 소방차가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 최소화의 관건이다. 5분 이상 경과 시에는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국내진입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응급환자에 게도 4~6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이다.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는 내 가족과 이웃사람의 실존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이 긴급신고를 하고 도움이 손길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긴급차량들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갖길로 차선을 바꾸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 이들 차량이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사상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장병호·화순군 화순읍